

### 시와 음악이 만나는 '소박한 문화축제'

구립 하늘도서관 8일

구로구립 하늘도서관(구로2동)에서 박수정 르포작가와 함께 글쓰기 작업을 했던 학생들이 오는 9월 8일(토) 오후 5시 '하늘 시낭송 음악회'를 펼친다.

하늘도서관은 박수정 르포작가를 초빙한 가운데 2010년 5월부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그해 7월부터는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글쓰기 수업을 진행해 왔다.

특히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박은빈, 이동현, 이택진, 이현민, 전성우, 전현수, 최정문 군은 당시 고교생 대상 프로그램이 없던 하늘도서관에 글쓰기 수업을 받게 해달라고 간청했을 정도로 애착과 열정이 남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이택진, 전성우 군은 지난 6월 27일부터 20여일 간 마포구에 위치한 문화공간 '숨도'에서 '스무살 진흙 속에 꽃 한송이 던져본다'라는 주제로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날 시낭송 음악회에는 글쓰기를 통해 세상을 배우고 삶을 가꾸는 학생들의 작품이 시화전과 음악 등을 통해 소개될 예정이다. 또한 박수정 작가와 송경동 시인, 심보선 시인이 시낭송을 갖는다. 구로구청책서폰동아리 폴리포니, 노래하는 사람들, 오류동 오시어스 밴드 등의 공연도 펼쳐진다.

최미숙 관장은 "열린 공간에서 우리청소년들의 자작시와 시화전, 음악 등을 통해 소통하고 생각을 나누고자 소박한 문화제를 마련했다"며 "소박하고 맑은 마음으로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864-9586.

송희정 기자

### 음악으로 떠나는 책속세계여행

구로도서관 15일 오후

구로도서관은 오는 15일(토) 오후 2시 시청각실에서 스피릿 앙상블 공연으로 '음악으로 떠나는 책속세계여행' 음악회를 개최한다. 50명 내외 선착순 접수이며,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신청가능. 문의 6958-2901.

### 구민노래자랑 예심 신청접수

동주민센터 등

구로구는 오는 10월 7일 개최될 점프구로 구민노래자랑에 참가할 자격을 갖는 예심을 오는 9월 26일 오후 2시 구청 5층 강당에서 갖는다.

예심 참가 희망자는 문화체육과나 동주민센터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문의 860-2024.



▲ 지난 25일 밤 오류동 상가 철제셔터 벽화 그리기에 나선 청년들. 프로젝트에 섭외된 상점은 모두 5곳으로 날씨 상황과 봉사자들의 참여를 고려해 9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동네상점 셔터에 새바람 일다

토요일이던 지난 8월 25일 밤 인적이 드물어지는 동네 골목. 영업이 끝나 불 꺼진 가게들과 주인 없는 가게를 덮어버린 철제셔터, 그 셔터 앞으로 모여드는 청년들, 그리고 '셔터 벽화 그리기 in 오류동'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오류동에 거주하는 정효민(27)씨는 밤값이 무섭다. 자동차 굉음과 스치듯 지나가는

에 프로젝트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주말이던 지난 8월 25일과 26일 양일간에 걸쳐 오류초등학교 진입로에 위치한 벽화 1호점 '오류청과'와 2호점 '오류중앙약국'의 작업이 진행됐다.

프로젝트에 섭외된 상점은 모두 5곳으로 날씨 상황과 봉사자들의 참여를 고려해 9월

으로 표현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4차례의 오류동 알기 워크숍과 상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셔터그림을 디자인하였다.

밤늦은 시각, 몇몇의 봉사자와 함께 셔터에 그림이 입혀지면서 지나가던 사람들의 시선도 점차 많아졌다.

한참을 쳐다본 김영희(62)씨는 "셔터의 그림을 보면 사

### '벽화 그리기 in 오류동' 프로젝트 진행

### 상점 철제셔터 변신에 주민 호응 잇따라

낮익은 혹은 낯선 이웃들, 그리고 닫혀진 가게의 철제셔터들을 매일 접하지만 익숙해지지 않는 무서움이다.

"셔터에 예쁜 그림이 그려지면 덜 무섭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정효민씨는 구로민중의 집에 제안을 했고, 사무국장 박은희씨와 1인 시민활동가 조원영(33)씨가 동참하면서 '셔터 벽화 그리기 in 오류동' 프로젝트가 탄생하게 되었다.

조원영 씨는 "마을을 소재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야깃거리가 풍부하게 나오는데 마을 안의 불편한 점은 늘 거론이 되죠. 혼자서 느끼는 것은 막연한 불편함이지만 여럿이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구체적인 사항이 이야기가 되어서 실현가능한 개선방안이 자연스럽게 논의 되더라고요. 유쾌한 이야기를 통해 마을안의 변화가 가능하겠다는 생각

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셔터벽화 1호점인 오류청과 이경희(46)씨는 "벽화 홍보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단혀져 있는 셔터에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왕이면 가게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그림이라면 광고도 될 것 같아 참여하게 되었다"며 토요일 영업을 마치고 셔터를 내렸다. 주말을 보내고 돌아오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있을지 기대하는 눈치다.

이전까지 그려진 대부분의 벽화에는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이 예술가들의 개인적 취향에 덮여 잘 보이지 않았다. 그저 예쁘고 특이해 마을 사람들은 잊혀지고 관광지로서만 남는 웃지 못할 일이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오류동 벽화프로젝트팀은 참가자들의 생활 모습과 소망들이 셔터그림

람들의 마음이 여유롭고, 미소짓게 만들고, 온화하게 만들어 줄 것 같아요"라며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어떤 이들은 봉사자들의 끼니를 걱정해 주었고, 어떤 이들은 참여하고 싶어하였고, 어떤 이들은 감탄을 아끼지 않았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가게셔터에도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했다. 반응이 무척 좋았다.

셔터벽화를 처음 제안했던 정효민씨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마을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이 일이 끝나면 "관심 있는 여러 단체나 개인 분들이 참여하여 벽화그리기를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한 구로청년의 상상에서 시작된 마을의 변화가 내심 기대된다.

성진아 시민기자

### 개소2주년 프로그램

보육정보센터 9일부터

구로구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는 개소 2주년을 맞아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했다.

△8일(토) 오전 11시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오르프 음악체험놀이(희망 10가족 모집)를 △12일(수) 오전 10시30~12시30에는 아빠 엄마랑 함께 만드는 우리 아이만의 작은 정원(학부모 30명 모집, 재료비 5천원) △15일(토) 오전 9시30~12시에는 가족과 이웃이 다함께 전래동요부르기 한마당(10개 팀)을 개최한다. 문의 859-5678.

### 기초 수화교실 모집

9월 3일 개강

농아인협회 구로구지부는 9월 3일부터 11월까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2시간동안 기초수화교실을 진행한다. 수강료는 7만원.

### 미혼장애인 단체미팅 접수

성프란치스코 30일까지

성프란치스코장애인종합복지관은 오는 10월 13일 오후 1시부터 복지관 4층 강당에서 미혼장애인 단체미팅 'open your heart 네 번째 이야기'를 진행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미혼장애인은 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전화, 팩스,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4만원이며 이 중 2만원은 참가 약속금으로 미팅 당일 되돌려준다. 모집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

문의 830-6500

### 구청장기 태권도대회

9일 우신고

제23회 구청장기 태권도 품새 및 제13회 구태권도협회장기 태권도 겨루기 대회가 오는 9월 9일(일) 우신고등학교(공동 소재) 체육관에서 열린다.

구로구태권도협회(회장 윤치성)는 이날 오전 11시 개최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 구청장기 볼링대회

9일 에이스볼링장

제13회 구청장기 생활체육 남녀 볼링대회가 오는 9월 9일(일) 에이스볼링장(개봉사거리 소재)에서 개최된다.

구로구볼링연합회(회장 김용웅)는 이날 오후 1시에 개최식을 열 예정이다.